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12)

若欲不出家志 須知名山勝妙處
악욕불부출가지안엔 수향명산공묘지하되
一衣鉢 絕人情 飢飽 無心道自高
일의일발로 절인정하면 기포에 무심도자고나라
... (중략) ...

남 되돌아 내 허물 거른다는 말 들게 되리라
비록 그러하나 무릇 모든 형상이란 다 실체가
따로 없는 것이니,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함에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하라
계승으로 말하노라
아침부터 하루종일 남의 잘 잘못이나 떠벌이
다가 밤새도록 흐릿하여 잠이나 즐기누나. 이
같은 출가 헛되이 보시나 속내는 것이라
참으로 삼계 윤회 벗어나기 어렵도다.

민약 출가한 듯 등지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명산을 찾아가(고요한 자리를 잡아서) 묘의를
공구하되 옷 한벌 바리때 하나로 인정되고 주
리고 배부름에 마음두지 않으면(먹거리 걱정에
달리지 않으면) 도는 저로 놓이지리라.

其十 居家中心常平等
(기집은 거중중하여 심상평등하라)
... (중략) ...

其九 勿說他人過失
기구는 불설타인과실하라
... (중략) ...

평등성중에 무파차하고 대원경상에 절친소
니라)
... (중략) ...

어떤 칭찬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평등하면 취하고 버릴 것도 없어

아름답게,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비록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
... (중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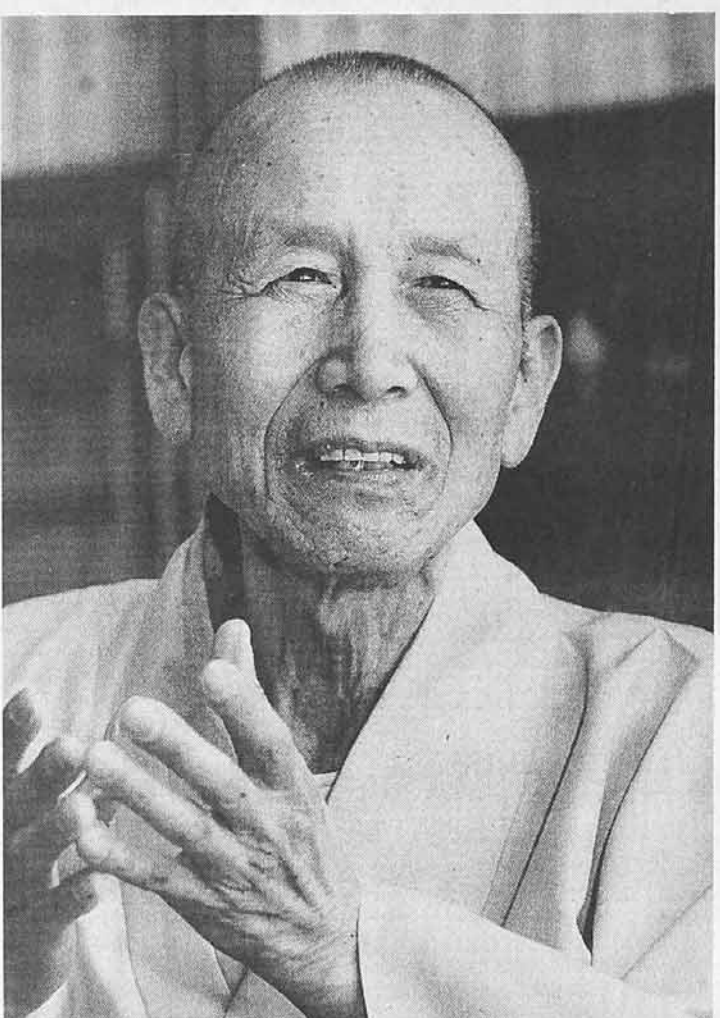
민약 칭찬하고 소원함(성김)이 있다면 마음으로
평등치 못한 것이라.
비록 다시 출가하나 무슨 덕이 있으리오 마
음 가운데 민약 마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취하고 버릴이 없다면 몸이 어찌 괴로움과 즐
거움의 성하고 쇠함이 있으리오.
... (중략) ...

若聞善人言 如親父母聲
악문선인언커튼 여취부모성하라
... (중략) ...

마음 평등한 지리에 계합하면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나니 민약 취하고 버릴이 없다면
생사가 어찌 있으리오.
계승으로 말하노라
... (중략) ...

과학 문명은 '욕망'의 산물

서용스님 <백양사 조실>



이 지상의 중생이 무명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부처님은 영안불변의 진리와
참사람의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자대비한 인간본성의 일
깨우심이고 어둠 속에 광명을 밝히
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인간의 길을 성취하시고 일생을
바쳐 가르치신 분입니다. 생명을 가진
중생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면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생로병
사의 실상을 깨달으시고, 이를 초월하
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참사람
으로서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되풀이되며, 참사람의 본바탕인 동체
대비를 증득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데
서 무명의 행입이 거듭된다고 가르치
셨습니다.

참된 사람의 동체대비를 실
현하여 남을 이롭게 할 때 자
기도 이롭다는 자리아타(自利
利他)사상을 모든 생활에서
실천합니다. '참 나'는 이웃과
일체이며, 국가사회와 일체이
며, 정인류와 일체입니다. 모
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등하
며 일체이기 때문에 총화가
언제나 오늘에 실현되어야 하
는 것입니다.

나만의 자유는 방종

참된 인간사회 실현은 가치있는 모
든 일에 앞서서 부처님의 계명을 받드
는데 있으며, 이를 개인 생활에서, 집
단과 국가 인류 사회에서 창조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인간이 단편한
반인간적인 비극의 실상, 즉 분열과
갈등, 질락과 정쟁, 그리고 자기 중심
적인 욕망과 모순의 극복을 우리가 참
으로 사원한다면 생애의 집착, 사의
허무를 초극해야 합니다. 또한 이성과
반이성의 대립을 넘어서 참사람으로서
평등과 자유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심적 구조상,
첫째 그 밑바닥에는 감각과
욕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러나 감각 욕망이 없어서는
또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
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동시인 만족
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양
없이 불안하게 허덕이게 되고
또한 욕망에 고달리면 자기의
올바른 정신이 없게 되고, 그
것의 노예가 돼서 참 자유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 욕망
으로 인하여 질서도 없고, 폭
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살고 이
성을 각성한 시대라고는 하지
만 세계적으로 폭력이 난무하
는 것은 개별된 욕망으로 살
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입
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산
다고 하면 당연히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해
결되는 것이며, 그 결과 이와
같이 과학문명을 창조해냈다
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이 옳다, 그르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것을 가지고 학
문도 연구하고 과학문명을 건
실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우
리 인간이 구경적으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과학문명의 극대화 이끈바
생활의 과학화라는 성과를 획득했습
니다. 반면에 우리는 과학문명이라는 물
질적 욕망의 산물인 기계와 조직의 노
예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과학문명사회에서는 인간소외의
비판이 높아지고, 낙후 사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인간화의 광배로 그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은
이성적 세계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에
냉철한 이성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속의 무책임한 자기 발산과 나 하나만
의 이기적인 사고, 나 하나만의 방종한
자유와 주장으로 내적 갈등과 분열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자유의 실현
은 인간의 본질적인 이상입니다. 그러
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우리 불교의
일찍다 다죽일(一即多即一)의 원융
(圓融)정신에 입각한 불평등의(不偏不
倚)한 대동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나 하나만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이
웃과 사회, 국가와 전인류적인 차원의
자유와 결부될 때만이 참된 자유가 되
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친 자기

이만만을 생각하고 부의 축적만을 꾀하
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만의 안전과 복
락만을 도모하는 자기 안전도의 모순은
없습니까? 전체가 파국에 직면할 때 나
하나의 부도, 안전과 복락도 결코 지탱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마음' 개발하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이며
탐욕적인 자기 모순을 대담하게 탈피,
참사람을 실현하려고 참회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착하다,
악하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
러한 대립분열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
기에는 항상 불안하고 절대
절망·불안·절대모순에 빠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각
위에 이성이 있고 이성을 개발해서 살
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원만
하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
본, 그 바탕에는 부처님 마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
하고 참으로 무아의 경지, 절대적 경
지, 영원의 생명체에서 우리가 편안하
고 즐겁게 서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도워서 어디든지 걸리지 아니하고 자
유자재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
므로 우리 인간 근본 바탕이 부처
마음, 이것을 개발해서 살면 우리는 출

佛敎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 595,000
서울-방콕(2박)-아이유타,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출발일: 2월/2, 7, 9, 14, 16, 21, 23, 28 3월/2, 7, 9, 14, 16, 21, 23, 28, 30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일 ₩ 685,000
방콕·푸켓 5일 ₩ 795,000
동남아 3국 5일 ₩ 745,000
방콕·푸켓·싱가포르 6일 ₩ 895,000
하와이 5일 ₩ 679,000(일금) ₩ 765,000(특금)
미국 서부 버스 7일 ₩ 799,000
유럽 5개국 10일 ₩ 1,790,000
사이판 4일 ₩ 735,000
괌 4일 ₩ 735,000
호주·뉴질랜드 8일 ₩ 1,745,00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일 ₩ 635,000
푸켓 5일 ₩ 740,000
대만(화련) 4일 ₩ 520,000
괌 4일 ₩ 670,000 5일 ₩ 785,000
사이판 4일 ₩ 670,000 5일 ₩ 785,000
하와이 5일 ₩ 790,000(일금) ₩ 890,000(특금)
호주 5일 ₩ 1,109,000 6일 ₩ 1,149,000